

## 518교육의 방향과 원칙 그리고 제안

은우근(광주대 신방과)

### 1.

#### 박구용 교수 발표에 대한 논평

박구용 교수의 발표는 5·18교육과 교재 집필의 방향에 대한 좋은 제안을 담고 있다. 원래 박교수에게 토론문을 부탁드렸지만 가장 먼저 글을 보내왔고 논평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박교수는 역사교육에서 상호주관성에 의한 소통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소통은 차이에 대한 인정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어 하버바스의 3가지 인식관심을 제시한다. ① 기술적 인식-사료 비평과 해석이 중요. 전문가적, 과학적 분석. 전문가 상호간의 소통 필요. 실증적 역사학과 연관 ② 실천적 인식-역사교육과 연관, 전문가와 대중의 소통 필요 ③ 해방적 인식-비판적 사회과학, 철학적 관점 필요.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발전.

박교수는 학문으로서 역사 인식은 ①→②→③의 과정으로, 교육으로서 역사 인식은 ③→②→①의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한다. 이는 학문이 궁극적으로 해방적 인식을 지향해야 하고, 역사교육은 해방적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역사교육은 당연히 학문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주 연속 개최된 학술집담회의 목적은 5·18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지난 1차 집담회에서 남궁협 교수는 '무엇'보다 '어떻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5·18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즉 5·18교육에서 해방적 인식이란 무엇인가에 고민이 필요하다. 5·18 35주년이 지났지만 그런 고민과 학문적 성찰이 매우 부족하다고 여긴다. 박교수는 역사교육을 문화교육과 연관지어 고찰할 것을 주장한다. 학문의 2가지 조건으로서 ① 타학문과 구별되는 대상영역과 ② 보편타당한 명제를 들고 있다. ②의 지점에서 역사철학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신학을 제외하면 한국사 특히 한국 근현대사를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시도는 매우 드물

었다.

역사교육에서 역사적 복수(復讐)가 아니라 역사의 복수(複數)성이 중요하다는 박교수의 주장을 인정한다. 권력의 해석이 강요되는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역사상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지향할 보편적 명제와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박교수는 이어 복수(復讐)의 역사의 특징이 신화적인 역사 해석으로 나타나고 타자를 배제하는 우리라는 정체성에 갇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교수는 어쩌면 5·18민중항쟁의 신화화를 우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5·18민중의 신화적 실천이 인위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에서 조작된 것인가가 아닌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발표자는 5·18민중의 투쟁에는 신화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고 본다. 그러나 신화적인 실천의 주체인 민중은 사실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던 아주 비참한 평범한 존재였다. 한때 신화적인, 영웅적인 실천을 했던 그들은 결코 신도 영웅도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다시 공포에 사로잡힌 현실적, 자기중심적 존재로 돌아갔고, 그에 대한 반성적 의식으로써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간직하게 되었다. 물론 신화적인 투쟁을 천편일률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월민중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변화해왔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여러 질문이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 박교수 말처럼 역사교육을 통해 “현재를 정당화시키는 역사만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고자 한다면”,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주체성을 형성해 왔지만 이름도 남기지 못한 인물들과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 “폭력의 뿌리를 찾아서 제거하는” 5·18교육은 분단체제의 폭력적 관리자로서 국가와 가해자 또는 방관자가 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성찰 중심의 역사교육이어야 한다. 박교수는 이런 수업은 ‘제시된 정답’을 담은 교재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로운 수업 참여자들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참고서로서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제안은 적절하고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쟁점을 중심으로 질문 중심의 교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2.

### 김정인 교수 발표에 대한 논평

김정인 교수의 연구는 5월민중의 실천과 고통에 대한 공감적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적 결과물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5·18은 한국 현대사의 주

요 변혁운동 가운데 민중의 공감능력이 가장 극대화되었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화에 장기적·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김 교수의 연구는 초중고와 대학에서 뿐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한 시민교육에서도 소중하게 활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 또한 5·18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개발할 경우에도 유용하다.

김정인 교수의 연구는 문화·예술적 결과물 가운데 주로 영상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주에 열린 5·18교육 1차 집담회에서 심영의 교수 발표에 나타난 내용을 포함한 5·18문학, 그리고 미술과 음악의 여러 성과들과 정재호 교수의 조선대 수업과 발표자의 광주대 수업에서 활용된 동영상들을 김정인 교수의 연구와 연계시킨다면 문화예술을 통한 5·18 교육 과정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 경우 학습 참여 대상에 따라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저작권 문제를 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이 5·18에 대한 사회과학적, 구조적, 논리적 인식을 성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 방책도 강구해야 한다.

### 3.

#### 최호근 교수의 5·18교육의 원칙

최호근 교수의 연구는 “20세기에 민주주의의 위기와 발전 과정에서 세계 각처에서 발생한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제노사이드 사건들과 과거사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가공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원리적 방법적 결과들이 도출되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는 내용적으로는 홀로코스트 교육의 사례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지만 5·18 교육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최교수도 지적하듯이 “단순한 학살과 파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에서 바탕에서부터 분연히 일어났던 5.18의 사례는 세계의 수많은 제노사이드 사건들과 대칭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며, 교육적 측면에서도 선행 사례들에 대한 가공에서 얻어진 이론 및 방법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측면과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사건 전개와 조건과 환경, 방식과 결과에서도 5.18은 다른 유사 사건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사건 종식 후에 전개된 기억의 인정투쟁과 그 의미에서도 정면 비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광범위한 사례들에 대한 조망은 5월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좀 더 구체화하고, 원리와 전략, 개념과 방법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최교수는 유네스코(UNESCO), 미국의 국립 홀로코스트 기념관(USHMM)과 <역사 그

리고 우리 자신과의 대면 재단>(FHAO),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Yad Vashem) 등의 교육 원리들을 실행 프로그램들과의 연관 속에서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이도 아브람(Ido Abram)같은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5·18교육의 원칙을 제시한다.

발표자는 최고수의 연구에서 이도 아브람(Ido Abram)의 아우슈비츠 교육의 5대 원칙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 원칙은 아도르노(Theodor Adorno)의 논문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에서 출발한 것으로 홀로코스트 교육목표의 설정과 교육의 기대효용에 대한 전망을 함축하고 있다.

1. 공감과 온정의 육성 (공감과 온정의 도덕적 능력 함양)
2. 자율성의 육성 (비판적 자율성의 함양)
3. 과거의 공포가 오늘날의 현실적 공포와 무관하지 않음을 체감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 인식)
4. 가해자, 희생자, 방조자 모두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 배양 (인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감정이입적 인식 능력 배양)
5. 평범한 독일인들을 가해자와 살인자로 만들어갔던 메커니즘, 상황, 구조에 대한 통찰 제시 (행위에 대한 구조적 인식)

아도르노는 독일의 역사 정치 수업에서 과거사 교육에 필요한 목표 설정과 원칙 수립에 토대를 부여했다. 아도르노의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 Erziehung nach Auschwitz>(1966)은 독일 국가와 사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을 원리적으로 제시한 저작이다. <계몽의 변증법>에서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20세기 전반기의 야만적 상태를 철학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아브람은 아도르노가 제시한 원리의 끝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유를 시작한다. 아도르노의 ‘다시는 그만!(Nicht wieder!)’ 테제를 아브람은 ‘야만으로부터의 탈피(Entbarbarisierung)’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아우슈비츠가 그 가공할 결과였던 인간의 야만은 사랑과 온정(Wärme)의 결핍이라는 의미에서 냉혹함(Kälte)이요, 타인과 자신을 동일화(Identifikation)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 즉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능력의 결핍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에서 아브람은 야만의 본질을 ‘공감 능력의 결핍(das Unvermögen zur Empathie)’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은 다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인 공감과 다른 사람에 대

한 배려,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뜻하는 온정의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교육의 원칙이다.

두 번째 원칙은 자율성(Autonomie)의 배양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이란 다수의 판단과 행동을 생각 없이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초래할지도 모를 결과를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은 꼼꼼이 생각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면서, 대세를 추종하는 태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은 아우슈비츠의 참혹한 현실이 충분히 우리 세계의 참혹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우슈비츠가 한 때 우리 인류의 세계에 속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재발의 위험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제 2의 홀로코스트는 한 때 나치가 열등한 집단이나 적으로 규정했던 유대인, 로마와 신티(Roma und Sinti, 흔히 집시로 불림), 동성애자, 장애인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는 물론 방조자와 가해자의 입장에 우리 자신을 이입시켜보도록 하는 것이다. ‘방조자’에는 한 편에서는 나치를 도왔던 사람들이 속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박해받는 사람과 희생자들을 도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범과 저항가들까지도 포함한다. 이것이 주는 교육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과거의 인물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과거사에 대해 민감하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충분히 야만적 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이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변화의 계기를 제공해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수많은 난관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조자나 저항가가 될 수도 있다는 내적 경험은 실제로 그러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은 나치 치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과 살인자로 만들어갔던 기제들, 구조들, 상황들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독일의 역사교육이 이스라엘을 비롯해 홀로코스트와 관계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의 역사교육과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구조에 대한 파악 없이,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을 현재적 가치기준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과거사 교육과 거리가 멀다.

지금까지 정리한 아브람의 5대 원칙에서 교육의 실천적 적용 면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온정과 공감, 그리고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브람에 따르면, 이러한 중심 개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과거사 교육에도 본질적 변형 없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아브람은 어린이들의 인지발달 단계와 정서적 감수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아우슈비츠 없는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Erziehung nach Auschwitz ohne Auschwitz)’이라는 명제로 유년기 교육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최교수는 결론부에서 다음과 같이 5월 교육의 원칙 수립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그는 크게 교육의 원리적 방향, 목표, 접근 전략, 의미의 4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해당 원칙들을 제시한다.

#### ◎ 원리적 방향

##### ▶ 의미의 보편성을 깨닫게 하라.

1980년 봄 광주와 일원에서 시작된 5·18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특수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의미와 영향에서는 지역과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 세계사적인 의미와 교훈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다.

##### ▶ 학습자 스스로가 현재적 연관을 발견토록 하라.

5·18은 한갓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사건 자체는 물론 이후의 5월 운동을 통해서도 동시대인과 후세대의 생활세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다는 현재적 사건이라는 점을 의식할 수 있게 한다.

▶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 전개의 인과성(필연성: 발표자)을 이해하도록 하라.

5·18은 조속한 진압을 도모했던 집단과 민주주의적 열망을 실현하고자 했던 광범위한 집단들 간의 대응 행동이 서로 맞물리는 가속적 상승 과정에서 전개된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매 국면마다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그 역사적 운동의 참여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조건들과 제한된 정보 속에서 어떤 판단과 기대 속에서 그와 같은 선택적 행동을 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5·18이 불가피했다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하라.

5·18의 강경진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다. 그와 같은 조치는 결정권자들의 목적과 의지, 상황 판단에 따라 상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이와 유사하게, 일반 시민들과 시민군, 그리고 여러 집단의 국민들이 취했던 행동과 대응방식도 유일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안목을 통해 학습자들은 역사적 사건 속의 모든 행동이 선택이었고, 모든 선택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 5·18의 유산과 부채를 함께 기억하도록 하라.

5·18은 강경진압과 더불어 종식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5월 운동을 통해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과 해석이 사회적 기억으로 통합되어온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다. 그러므로 그 성과와 한계, 의의까지 돌아보며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구조 속에서 개인의 행동반경과 책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라.

일률적인 도덕적 판단에 근거하여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을 양분법적으로 재단하지 않도록, 먼저 구조적 조건들 속에서 각 집단과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책임과 행동반경을 파악하도록 하라. 이에 근거하여 각 집단과 개인에게 허여된 선택지들 중에 어떤 동기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에 유의하여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피해의 규모를 단순하게 계량화(숫자로 환원)하지 마라.

## ◎ 교육 목표

### ▶ 공감과 의분의 능력을 배양하라.

다양한 사건 관계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심경, 그리고 그로 인해 겪어야했던 경험들을 감정이입을 통해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하라. 특히 생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조명함으로써, 사건 자체의 무게를 인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소수집단과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 개인의 자율성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으라.

딜레마로 보이는 구체적 장면에 대한 학습을 통해 상황과 시대의 요구, 더 나아가 국가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인도적인 보편적 가치기준과 양심에 어긋날 경우에는 불복종할 수 있는 계몽된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함양한다.

### ▶ 비판적 사고 능력을 계발하는 기회로 활용하라.

5·18은 언론통제와 일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권력이 어떻게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다. 그러므로 이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정 당파와 이익집단, 국가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와 그 틀까지도 비판적으로 사유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과 인권, 평화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안목을 기를 수 있다.

### ▶ 열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힘쓰라.

5월 교육은 지역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면서도,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아시아,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다중 정체성을 학습 참여자들이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 접근 전략

### ▶ 사실과 해석의 차이를 환기시키는 데서 출발하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충돌하는 주제를 다룰 때는 이견이 없거나 적은 그루터기 사실들을 학습하는 데서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가치판단이 선행하거나 압도하

지 않도록 시간선(time-line)과 관련된 기초 정보들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5·18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해당 시대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도록 한다.

5·18은 무중력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서는 유신 독재의 갑작스러운 종식 이후 거세게 표출된 한국사회의 시대적 요구, 군부의 권력 장악 시도, 국제관계적 상황 속에서 사건의 추이를 지적 통찰을 통해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정서적 접근의 유용성을 기억하라.

강경진압 결정 책임자에서부터 희생자, 목격자, 방조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주어진 상황과 그들의 행동을 생생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정서적 접근을 배려하라. 필요한 경우에는 증언을 포함하여 정서적 동일화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적극 활용하라.

▶ 정서적 부담을 줄이도록 배려하라.

어린이들의 경우 정서적 부담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과거사 교육의 효과가 반감되기 쉽다. 게다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이미지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므로 잔혹한 장면들에 대한 묘사나 정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각영상 자료의 사용은 절제한다.

▶ 서로 다른 입장에 서있던 사람들의 내면을 이해하도록 하라.

강경진압 결정자, 진압작전 참가자, 시민군, 시위대, 가족, 목격자의 구체적 사례와 증언을 살펴보고, 자신이었다면 당시의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을 지를 내면적으로 추체험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다중 동일시(multiple identification) 과정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방안을 제공해줄 것이다.

▶ 세계사적 시각에서 5·18을 조감하게 하라.

파리코뮌에서부터 20세기 세계의 주요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해 5·18의 일반적 성격과 특수성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대조를 통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라.

우리 세계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이한 진술과 주장이 난무한다. 역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진압을 도모했던 진영의 당시 발표와 자료들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 및 회고와 견주어 살펴봄으로써, 실제 있었던 대로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 증언을 통해 새로운 증인이 되도록 하라.

학습자들에게 참여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직접 청취하고, 일차자료와의 대면 기회를 확보해 줌으로써 사건과의 시·공간적 간격을 넘어 역사적 사건의 증인으로서 자의식을 갖도록 한다.

▶ 목표집단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탐색하라.

연령, 성별, 국적, 직업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가운데 목표집단(target-group)의 특성에 어울리는 교육 전략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년기와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법의 모색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

### ◎ 의미

▶ 야만의 회귀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키운다.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유사 사건들과 5·18을 연계지어 살펴봄으로써, 부담스러운 과거사가 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국가폭력과 그에 상응하는 비극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가치 준수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학습자들은 5·18과 그 후에 행해진 폭력적 조치들이 희생자들은 물론 가해자들의 인적 존엄성까지 파괴하고,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 또 국민들 간에 엄청난 불신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한다.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이 그 무엇보다도 우위에 놓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도록 돕는다.

▶ 시민의 용기와 참여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5·18의 동기가 되었던 민주주의의 향유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용기와 의지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퇴보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 5·18의 의미 중 하나가 공동체 이상의 실현이었음을 알게 하라.

자율적인 치안질서 유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시민 상호간의 배려 사례들을 통해 5·18이 프랑스의 코뮌에 비견되는 찰나의 가치공동체 경험이었다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인간 존중의 공동체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신념을 갖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5월 교육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최교수의 시론은 5·18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심화를 토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4.

#### 5·18교육 교재와 온라인 강의안 개발을 위한 제안들

◎ 필요한 연구 또는 가능한 질문들

▶ 아도르노가 규정한 아우슈비츠와 분단체제 한국은 어떻게 다른가? 금남로 거리에서 벌어진 학살은 분단체제의 폭력적 관리자로서 군부독재의 폭력이 빚은 지옥이었다. 보도연맹 사건, 4.3사건, 여순사건, 5월학살, 세월호 참사는 시차를 두고 일어난 한반도 버전의 아우슈비츠 아닌가?

① 5·18은 무엇인가? 한국 현대사에서 5·18에 대한 성격 규정 필요-분단체제와 민중의 대결. 냉전체제를 떠받치는 53년 체제의 하위 체제로서 군부독재와 민중의 대결.

② 다른 민주화운동(4.19, 부마항쟁, 6월항쟁)과 구별되는 5·18의 특징은 무엇인가?

③ 역사적 맥락 속에서 5·18 이해 필요.

5·18 이전-4.19, 한일회담 반대 투쟁, 3선개헌 반대, 유신반대, 부마항쟁.

**박정희 유신독재의 성격 규정 필수**-병영국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주입 강요.

해방 이전의 민중 운동~동학농민혁명, 의병독립전쟁, 일제하 독립운동

5·18의 진행

5·18 이후 민주화 운동-5·18과 6월항쟁

6월항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87년 체제의 성격과 한계

### 5·18의 현대적 의의

\* 동학혁명, 3.1운동, 5·18의 공통점-민중의 대규모의 참여, 처참한 패배, 후속 운동으로 이어짐.

#### ④ 교재 또는 온라인 강의 모형

5·18의 실천적 가치-사건-인물을 연계하여 개발 가능

- ▶ 가치-실천 덕목 (예컨대 참여, 나눔, 연대)
- ▶ 사건-5·18 진행과 그 이후(진압 이후) 책임자 처벌까지
- ▶ 인물-류동운, 윤상원, 박금희, 박용준, 박관현, 무명시민군, 여성 그밖에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외국인까지(예컨대 위르겐 힌츠페터 등) 등...

\* 5·18의 여러 쟁점을 중심으로 질문 중심의 교재 제작 가능

\* 5·18 체험 교육 과정 개발

#### ⑤ 문화예술을 통한 5·18교육 과정을 독립적으로 개발

⑥ 연구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학습 참가자를 위한 영어 버전 온·오프라인 교재 또는 수업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용은 물론 국내용과 연관되겠지만, 이를 위한 별도의 원칙과 교육과정을 연구·논의해야 할 것이다.

### <5.18 교육. 연구 학술 집담회> 발표문

나에게 다가오는 오월 : 5. 18로의 문화적 여정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 1. 머리말

5. 18, 올해로 서른다섯 해가 흘렀다. 1980년 봄, 국가폭력에 목숨을 잃은 이들의 어린 자식들이 중년이 되어 부모에 대한 기억의 퍼즐을 어렵사리 꿰맞춰야 할 만큼 세월이 흘렀다. 5. 18에 대한 과거 청산은 다른 사례에 견주어 볼 때, 비교적 신속히 마무리되었다. 가해 주체인 국가는 진상 규명과 보상에 나섰고 주동자들을 처벌했다.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정신적으로는 사과를, 물질적으로는 보상을 받았다. 5월 18일은 국가기념일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교과서는 5. 18은 민주화운동으로, 그 희생자들은 민주투사로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살아남은 나, 혹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려 하지 않을까.’ 그들이 느끼는 소외의식과 고립감은 때론 생을 포기하게 만든다. 오늘도 머리와 마음과 몸이 너무 고달파서 스스로 세상을 등진 옛 시민군 동지를 보내고 남은 이들은 ‘그의 자살을 이해한다’는 참으로 뼈아픈 말을 내뱉는다. 하지만, 그들끼리 나지막이 말할 뿐이다. 세상이 그들을 보는 눈이 냉담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보상금도 듬뿍 챙겼는데, 아직도 5. 18 타령이냐’는 비난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 자신도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안겨 줄 것으로 생각했던 보상과 기념의 성찬이 오히려 마음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아직 5. 18은 대한민국에서 보편기억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5. 18의 보편기억화가 어려운 것은 홀로코스트처럼 5. 18 자체가 다신 일어나서는 안되는 ‘성스러운 악’이라는 도덕적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대학살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인류의 보편 기억이 된 것은 아니었다. 전쟁 직후엔 나치즘=인종차별주의=전쟁범죄가 청산되어야 할 과거이자 악으로 지탄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악을 저지른 전범들을 낱낱이 찾아내어 징벌하면 모두들 끔찍한 기억을 잊고 행복해질 거라 믿었다. 악은 그렇게 제거되어갔지만,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고통의 기억과 상처로부터 헤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람들은 트라우마 희생자들 곁에 다가갔고, 홀로코스트를 그린 소설, 영화, 드라마 속 평범한 주인공의 삶과 죽음에 공감할 수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평범한 자신도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는 물론 가해자도 될 수 있었다는 일체감을 형성하며 홀로코스트를 보편기억으로 공유하고 그것이 인류에게 남긴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있다.

5. 18은 35년이 흘렀건만 여전히 정치적 맥락에서만 이해되고 또한 다루어지고 있다. 먼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완결’되지 않으면서 일반인의 5. 18 인식도 과거 청산이라는 정치적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 18기념재단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절반을 훨씬 넘는 국민이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앓고 있는 이념적 분열증도 5. 18의 보편기억화의 장애물이다. 지금도 이념적 잣대로 5. 18이 고정간첩, 빨갱이의 사주로 일어났다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0년에 5. 18기념재단이 온라인상의 5. 18 인식을 조사했을 때, 부정적 평가가 18.4%에 달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30주년 기념식 이래 반복되고 있는 5. 18에 대한 홀대와 모독에는 집권 보수 세력의 5. 18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민주. 개혁. 진보를 내세우는 정치 세력 역시 5. 18을 지역주의 틀 안에 가두며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전유하는데 몰두함으로써 5. 18이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을 넘어 도덕적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720만 명이 영화 ‘화려한 휴가’를 봤다. 5. 18을 기억하는 이와 기억하지 못하는 이가 어울려 함께 눈물을 흘렸다. 대부분이 ‘아, 내가 이런 끔찍한 역사를 알지 못했을까’라는 망각 혹은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에 눈물 흘리진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국가권력에 의해 가족이 파괴되고 평범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그 죽음의 의미를 잊지 말아달라는 절절한 목소리에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5. 18을 평범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찰하는 보편기억화의 경험, 그것은 정치적 이해득실의 관점에서 5. 18을 바라보던 습속을 털어내고 살아남은 자의 고통과 치유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 줄 것이다. 5. 18의 보편기억화는 한 세대가 흐른 지금 출발선상에 서 있다. ‘화려한 휴가’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사람이 웃고 있지만, 살아남은 오직 한 사람 신애만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많은 신애가 오늘도 1980년 5월의 광주라는 시공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2015년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면, 5. 18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연대를 넘어 5. 18에 마음으로 공감하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5. 18의 보편기억화를 위한 디딤돌의 하나로 평범한 개인의 시선에서 5. 18의 기억을 되살리고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모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보편기억화의 모티브로서 홀로코스트의 보편기억화

과정을 먼저 살피고, 영화, 소설, 만화, 다큐멘터리, 사진 등 5.18을 기억하고 성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적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평범한 개인으로서의 ‘나’를 5.18의 기억 속 주인공과 동일시하며 공감하는 과정을 재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장과 절을 동영상, 사진, 소설 등의 문화 매체를 활용한 장면들을 배치하고 장면마다 ‘나’를 주체로 한 5.18로의 여정의 의미를 되짚는 방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0년 이래 5.18의 보편기억화를 위한 강의를 해오면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한국 안에서 아직도 보편기억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정치와 이념 갈등에 휘둘리고 있는 5.18이 한국은 물론 세계가 함께 아파하며 기억하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 즉 보편기억이라고 하는 공감대를 넓혀가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5.18의 역사를 민주화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라는 교과서적인 평가를 넘어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생생한 오늘의 역사로 받아들이며 오늘을 사는 주체로서의 ‘나’는 5.18의 역사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한다. 이를 통해 5.18의 보편기억화라는 방향에서 5.18교육의 원칙이 모색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2. 우리 기억 속의 5.18

### 1) 서른, 잔치는 끝났다?

- 5.18의 가해 주체인 국가는 진상 규명과 보상에 앞장섰고 주동자인 전두환을 처벌하고 5월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 5.18의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정신적으로는 사과를, 물질적으로는 보상을 받았다.
- 5.18의 고귀한 희생 위에 꽃핀 민주주의는 6월 항쟁을 통해 실현되었다.

### 2) 공감없는 비극, 5.18

- 민주화의 달성, 진상 규명, 전두환 처벌, 국가에 의한 보상과 기념에도 불구하고 5.18은 광주만의 기억과 기념으로 왜소화되고 있다.
- 왜 사람들은 나,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공유하려 하지 않을까. 아직 끝나지 않은 광주,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려 하지 않을까.

# 만화 ‘망월’의 행방불명자의 딸이 말하는 ‘불편한 진실’

# 김원중의 노래 ‘바위섬’

### 3. 세계인의 마음 안에 자리한 홀로코스트

#### 1) 왜 '안네의 일기'일까

“내가 자유롭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나는 내가 여자-강한 성격의 용감한 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만일 하나님이 나를 오래 살게 해주신다면, 엄마 이상의 인간이 되겠어. 보잘 것 없는 인간으로서 일생을 마치진 않을 작정이야.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1944년 4월)

→ 안네가 매일 기록한 것은 전쟁과 대학살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와 함께 숨어 지낸 사람들의 삶이었다.

○ 평범한 개인,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비극

“안네의 일기에 등장하는 여덟 명은 매일 공포와 굴욕 밑에 살면서도 절망하지 않았다. ... 안네의 일기는 우리나라 우리 후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또한 안네의 경험이 그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안네의 짧은 생애와 전 세계의 혼란에 우리가 연대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 준다” - 엘리너 루스벨트

→ 영웅과 집단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의 고백에 공감

#### 2) 인류의 슬픔이 된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the Holocaust)는 처음부터 '홀로코스트'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나치즘=인종차별주의는 악이 되었다. 그리고 이 악은 곧 제거될 것이고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면서 나치즘에 의한 희생자는 구제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진보 서사'가 풍미하였다.

- but 사람들이 외면하고 방치한 '악'인 유대인대학살은 희생자들에 여전히 트라우마였다!

○ 1960년대 초반 유대인대학살=악[=인류범죄]으로 인식되면서 “홀로코스트”라는 개념이 시민성을 획득하였다.

○ 특정 집단에게 트라우마(trauma, 정신적 충격, 쇼크, 외상)가 된 역사적 사건이 반세기를 거치면서 모든 인류에게 트라우마적인 사건으로 자리잡았다.

→ 이제 인류는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으로부터 분리되면서] 홀로코스트의 비극에 공감

하며 함께 슬퍼한다. : 역사적 시간을 넘어선 보편의 기억으로!

○ 비극서사가 된 홀로코스트

-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트라우마 희생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함께 경험하면서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스스로와 일체화시킨다.

-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악은 타자의 행(行)과 심(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에도 내재한다는 것이다. ‘악’은 평범하다는 진실을 감정적으로 수용하면서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은 앞으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도덕적 책임감이 발현된다.

# EBS 다큐멘터리 ‘2차대전사’ 39회 ‘아이히만’편의 재판

- 우리 모두가 희생자이며 가해자라면 집단의 고통, 희생자, 가해자로부터 합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진정한 진보는 도덕이 특정한 시대와 공간을 넘어 보편화되어야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 개인화를 통한 심리적 일체감 형성

- 비극서사로서의 홀로코스트는 오랜 ‘일체화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다. 홀로코스트의 비극 서사를 극화하는 데는 서적, 영화, 연극, TV 등 문화적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홀로코스트 드라마는 트라우마와 등장 인물을 개인화하는 역할을 했다. 홀로코스트를 스펙타클하게 묘사하거나 지도자, 운동, 조직, 군중, 이데올로기 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소그룹, 가족과 친구,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의 관점에서 묘사했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의 희생자들은 보통의 남자, 여자, 어린이 그리고 부모가 되었다. : 안네의 일기, 미니시리즈 홀로코스트

- 비극의 희생자와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개인화에 부응하여 가해자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가해자들도 특수한 개인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물이 되었다. 즉, 광범하고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해자에 대한 공감을 넘어 일체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 영화 쉐들러리스트

#### 4. 5. 18, 일체감 형성을 위한 문화적 여정

홀로코스트가 세계인이 함께 공감하는 보편기억으로 자리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심리적 동일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심리적 동일시, 즉 일체감 형성에는 소설, 시, 만화 등과 함께 과학기술의 진보가 추동한 문화혁명의 산물인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

메이션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5. 18의 경우도 적지 않은 소설, 시, 만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문화적 재현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재현을 통해 심리적 동일시를 형성해가는 현성과 과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했다. 720만 명의 관객이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심리적 동일시의 표현인 720만의 눈물이 5. 18의 보편기억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5. 18의 문화적 재현을 시도한 소설, 만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사진 등이 빚어낸 심리적 동일시 현상에 주목하여 특정 장면들을 선정하여 타자도 우리도 아닌 ‘나’ 자신의 눈과 마음으로 5. 18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어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자 한다. ‘내가 피해자라면? 혹은 가해자라면?’이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5. 18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한다.

### 1) 피해자, ‘나’의 트라우마

5. 18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고통은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트라우마로 남아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피해자인 ‘나’가 되어 트라우마가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좇아 보도록 하자.

#난 태극기를 흔들었다, 그러나 : 영화 ‘화려한 휴가’의 전남도청 앞 발포로 주인공 동생이 쓰러진 장면

#애국가와 함께 총성이 울렸다 : 영화 ‘꽃잎’의 전남도청 앞 발포로 주인공 어머니가 쓰러지는 장면

#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평범한 청년이 시민군에 나서는 장면

#나의 슬픔을 전해 주세요 : ‘모래시계’에서 시민군의 어머니가 주인공에게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 달라고 애원하는 장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 ‘화려한 휴가’의 주인공의 죽음 장면

#국가가 나의 엄마를 죽였다 : ‘꽃잎’의 주인공이 국기 하강 의례를 거부하는 장면

#살아남은 나의 슬픔 : ‘화려한 휴가’의 엔딩 결혼식 장면

#난 폭도가, 빨갱이가 되었다 : ‘꽃잎’의 인부들의 대화 장면

## 2) 평범한 가해자, ‘나’의 선택

가해의 주범들은 5.18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해자는 가해의 주범이 아니다. 평범한 개인으로서 당시 군부의 명령을 받아 진압에 나섰던 군인들을 가리킨다.

# 나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 : 영화 ‘박하사탕에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에 절규하는 주인공

# 운명을 거부한 나 : ‘박하사탕’의 주인공의 자살 장면

# 죽음으로 용서를 비는 나 : 영화 ‘황무지’의 주인공의 분신자살 장면

# 두려움의 공간을 떠난 나 : 액션드라마 ‘오월의 두 초상’의 주인공의 독백

# 속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 : 다큐멘터리 ‘오월애’의 소대장 출신의 속죄 발언

## 5. 집단의 기억과 기념을 넘어, 35년 테제 : 5월이 내게로 온다

5.18이 일어난 지 35년이 지났다. 당시 주인공이었던 학생 혹은 시민군은 지금은 집합주체가 아니라 피해자로서의 개인적 삶을 홀로 혹은 가족들과 영위하고 있다. 세월이 흐른 만큼 1980년 5월의 사건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35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날의 주인공들의 삶의 궤적을 한 사람 한 사람 찬찬히 살펴보며 5.18의 의미를 되돌아볼 때이다. 그들의 35년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그들과 가족에게 남은 상흔을 매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 사건으로서의 5.18은 1980년 5월에 끝났지만, 삶으로서의 5.18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 1) 5.18의 트라우마, 현재 진행형

살아남은 사람의 삶은 힘겹다. 시민군으로 활약하다 계엄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 사람들은 지금도 악몽을 시달리고 욕설에 가득한 잠꼬대를 하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계엄군에게 당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꿈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나 : 다큐멘터리 ‘심리부검보고서’의 생존자가 악몽을 꾸는

장면

#분노하는 나 : ‘심리부검보고서’의 생존자가 아직 복수를 꿈꾸는 심경을 밝히는 장면

#나는 그의 선택을 이해한다 : ‘오월애’의 자살한 시민군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

# 남겨진 나의 고단함 : 영화 ‘순지’에서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둔 딸의 심경 고백 장면

#차라리 그의 아들이었다면 : PD수첩 ‘영화 화려한 휴가, 그 못다한 이야기’편의 희생자 아들

#중요, 그것은 고통과 슬픔 : PD수첩 ‘영화 화려한 휴가, 그 못다한 이야기’편의 피해자 딸

# 나도 괴롭다 : 이순원의 소설 “얼굴”(1990)

지금까지 ‘나’와 ‘우리’는 손잡아주길 기대하는 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 진상규명과 처벌, 사과와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라는 과거 청산 ‘의례’를 넘어 ‘엄존’하는 5.18의 희생자와 행방불명자의 가족, 생존자와 그의 가족의 삶을 외면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치 전범을 잡는 것이 과거청산의 전부로 생각하는 동안,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난 유대인들의 삶과 고통이 외면당했던 것과 같은 이치다. 어쩌면 5.18에 대한 과거청산은 5.18을 겪은 광주 시민의 아픔을 치유하기보다는 5.18의 희생에 대한 국민적 죄책감을 덜어주는 위한 ‘의례’였는지 모른다.

## 2) 5.18, 아직도 머나먼 보편기억화의 길

#불철저한 과거청산 : 만화 ‘26년’의 등장

# 악은 건재하다 : 영화 ‘29년’의 좌절과 시민 모금으로 만든 영화‘26년’

# 아직 벗지 못한 주홍글씨 : ‘망월’의 보안사 작전 담당관의 폭도 발언

# 이념이 옥쇄는 5.18 : 사진집 ‘망각기계’에 나오는 5.18 왜곡 뼈라

# ‘임을 위한 행진곡’의 수난 : ‘오월애’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없는 기념식에 유족들이 항의하는 장면과 애니메이션 ‘오월상생’의 엔딩 :임을 위한 행진곡과 5.18 당시 화면

# 죽은 자, 그리고 나 : ‘오월상생’의 5.18국립묘지 참배 장면

# 나에게 다가오는 5.18 : ‘슈피겔’에 실린 꼬마 상주 사진과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 그와 오늘을 함께 살다 : 꼬마 상주 조천호씨의 오늘의 모습

## # 나의 빼앗긴 일상을 되찾고 싶다 : 영화 '26년'의 엔딩 장면

5. 18이 국가 주도의 기념일과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과거로만 기억되는 한, 5. 18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하고자 하는 이들의 꿈은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 모두가 5. 18을 35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2015년 오늘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렇지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감성으로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5. 18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나아가 5. 18을 보편기억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쓰러진 누이일 수도 있고, 몸과 마음에 상흔을 안은 채 살아남은 동생일 수도 있고, 끝내 총을 겨누어야 했던 삼촌일 수도 있다!

### 6. 맺음말

이상에서 5. 18을 문화적으로 재현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5. 18의 기억을 우리라는 집단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았다. 5. 18의 보편기억화는 5. 18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집단적이고 당위적인 수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개인으로서 1980년 5월 광주의 평범한 개인을 마주하며 심리적 동일시를 이루어내는 과정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진다. 홀로코스트의 보편기억화 과정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화의 상징으로서의 '우리'의 5월에서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나'의 5월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확산하여 궁극적으로는 보편기억으로서의 '우리'의 5월을 만들어 가는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한국 안에서 아직도 보편기억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정치와 이념 갈등에 '악용'되고 있는 5. 18이 세계가 함께 아파하며 기억하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 즉 보편기억이라고 하는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나아가 5. 18을 민주화를 위한 고귀한 희생의 역사라는 교과서적인 평가를 넘어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생생한 오늘의 역사로 받아들여 마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진보는 도덕이 특정한 시대와 공간을 넘어 보편화될 때만 획득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본다.

### 에필로그 : '내가 5. 18을 공감하는 법

'나에게 다가오는 5월'이라는 주제로 5. 18의 문화적 여정을 떠나는 강의를 한 후 온라

인 e-class에서 받은 소감문을 첨부하고자 한다. 심리적 동일시에 초점을 맞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다. 소감문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올린 순서대로 가감 없이 배열한 것이다.

○ 그동안 518에 대해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알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아내의 일기를 떠올리면서 느끼는 감정이 518에 대해서는 잘 느끼고 있진 않았다는 점을 알았다. 그 당시에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과, 부상자들, 또 가해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때의 악몽에서 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해왔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영상으로 보는 것은 정말 큰 차이였다. 마치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러자 정부의 관심에서도 점점 잊혀져가는 이 사건에 대해 너무 슬퍼졌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너무 빨리 잊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이념적으로 해석되며 퇴색되기도 하고.. 우리는 그 당시의 피해자, 가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딱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학생 때 있었던 일, 5.18은 아버지께 그렇게나 많이 전해 들었는데도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다.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본 5.18은 현대에 살고있는 나에겐 굉장히 어이없는(민주주의는 싸그리 무시한)사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세대동안 많은 것이 바뀌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35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투쟁을 계속해 온 사람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 어떻게 국가가 한 지역의 국민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총으로 쏘 죽일 수 있는지.. 너무 가깝고 아프기만한 역사다. 독일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찾아가 함께 아파하면서, 가까이 있는 광주 5.18 기념관을 찾아 가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그럴만했다는 식으로 색깔을 씌워 이중 삼중 고통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가장 슬프다. 기억하지 않으면 언젠가 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가까운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평생 남겨둔 회한이 있다는 의미다.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제3자가 '가슴에 묻으라'는 식으로 제안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가슴에 묻어둘 누군가가 있는 당사자만이 스스로의 상처를 덮기 위해 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당사자가 아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함께 기억해주는 일이다. 더욱이 그들의 희생이 개인적인 일이 아닌 사회적인 사건이었을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불과 30여년 밖에 되지 않은 5.18에 대한 담론을 지켜워하거나 유가족들에게 그저 '가슴에 묻고' 잊으라 말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 대한 모욕이자 인간으로서의 도리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명백히 국가에 의해 자행된 학살이었던 5.18을 되짚어보며 책임자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5.18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려는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 새삼 분노하게 된다.

○ 5.18은 내가 초등학교일 때 처음으로 배웠던 기억이 있다. 그 때 5.18내용이 충격이었기에 초등학교때 5.18을 배웠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기에 교대에 들어와서 다시 5.18 강의를 들으며 기분이 납달랐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5년이 지났고, 그 당시 5.18을 겪었던 어린이들은 중년이 되어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잊혀질 수 있다. 그렇기에 책임감을 갖는다. 내가 그랬던 것 처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나한테 수업을 받고 5.18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또한 국가에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국가가 총을 겨누는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고통을 가늠할 수가 없다.** 5.18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 다큐멘터리나 후일담 문학, 영화, 연극 등을 통해 5.18을 접할 때마다, '저런 일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 맞아?'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애국가를 부르며 평화시위를 하는 일반 시민에게 총을 쏘다는 사실은 특히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고 부끄럽고, 눈물이 나고 분노하게 하는 역사이지만,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록 총은 아니지만, 말로써 글로써 제도로써 그러한 잔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잊혀질만하면 늘 꺼내보아야 하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현재를, 미래를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압제에 저항한 자랑스러운 시민군이 차가운 세상의 시선 속에서 더욱 고통받는다.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5.18의 가해자와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

다.

**세월호 희생자를 떠올립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불의와 압제에 맞선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정부의 무능에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세월호 피해자를 냉대하기 시작했고,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러한 사회가 되었는지, 왜 우리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감싸지는 못할망정 냉대하고 비하하는지,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 5.18 일어난지 30년이 넘는 지금, 국민의견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학살로, 다른쪽에는 정국장악을 위한 북한의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18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비극 가운데 휘말렸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강의는 5.18을 기존의 관점이 아닌 개인의 시점에서 다루었습니다. 개인의 시점에서 다루었던 것이 다른 강의와 차별점이 느껴져 신선했습니다. 보통 역사는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만 다루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시점에서 보는 역사적 사건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고 감정이 살아있었습니다.** (물론 강의 중에는 너무 감정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 이름만 돌아온 아들을 본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관 앞에 손가락만 빠는 아이의 모습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상상을 하니 몸서리쳐질 그런 감정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혹은 동생이 이름만 돌아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저는 역사적 사건 앞에 무력한 개인의 아픔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얼마 멀지 않은 역사인데, 그동안 멀게만 느끼고 역사에 감정이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우리 국민이며, 모두가 고통 받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각이 넓어진 것 같다.

단지 전두환 정권의 폭압 정치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좌절되고.. 최근의 역사지만 정말 이러한 역사는 모두가 알아야 되고 왜곡되지 않게 배워야 하는 것 같다.

○ 나는 초등학생시절을 광주에서 보냈는데, 그 때 학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말씀 해주시던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올랐다. 자신의 친구 혹은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라지지 않는 증오와 분노가 아직까지 광주에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기도했다. 여태까지는 희생자들만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도 고통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 시각이 넓어진 시간이었다.

○ 많은 기념일 중에 5.18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난 사건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오늘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 역사중에 중요한 민주항쟁인 5.18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이번 강의를 들으며 내가 5.18에 대해 지나치게 교과서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실제로 5.18을 겪은 사람들의 영상이나 5.18을 재연한 영상 자료들을 모아 봄으로써 더 실감나게 5.18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불과 몇 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고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비참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 전에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감정이입하며 보았던 기억이 있다. 이번 수업시간에 본 자료화면에서 영화 속 군인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군을 향해 발포하는 장면이 실제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고 그 잔인함에 놀랐다. 5.18은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사건이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많은 피를 흘린 광주 시민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아야겠다.

○ 광주에 지인이 살고 있어 자주 내려가곤 한다. 처음 광주에 발을 디뎠을 때에는 고등학교를 다니며 배웠던 5.18의 본고장이라 하여 민주 정신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곳이었다. 그렇게 광주를 종종 가면서도 518의 정신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번 수업을 듣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픔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

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너무 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아픔을 더 아프게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을 듣고 민주주의 사회에 살며 민주주의를 부르짖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 초등학생때 '화려한휴가'라는 영화를 보고 어린 나이였지만 한 나라 국민인데 군인들이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모습을 보고 엄청 울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더 충격에 휩싸였다.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희생하신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친가가 광주에 있어서 어른들로부터 5.18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5.18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족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그 당시 가해자로 생각했던 군인들 또한 5.18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이였다. 또 518을 소재로 한 영화들의 장면을 보았는데 어렸을때 아무 생각 없이 보았던 <화려한 휴가>도 다시 감정이입하면서 보니 마음이 아팠다. 다시 광주 친척집에 가면 광주 시민들의 상처를 생각하며 기념관에 들러야겠다.

○ 중학생 때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정말 감명깊게 보았던 기억이 있다. 그 후에 강풀 26년 만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때 화려한 휴가와 겹치는 장면이 많아서 5.18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던 기억이 있었다. 5.18을 앞두고 이런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더 5.18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집이 광주와 멀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광주에 대해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내년에는 꼭 5월에 광주를 방문하고 싶다.

<5.18 교육. 연구 학술 집담회> 토론문

##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5.18 교육의 방향

본 집담회의 주제를 접하고 필자는 5.18교육에 대한 현황과 좀 더 광범위하게 현재 역사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들을 먼저 살펴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학습자들이 단편적인 지식만을 암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록물과 사료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적 상황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대안과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우리 모두 익히 잘 아는 사실로 5.18 민주화운동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자료임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써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강주연 외, 2015). 이처럼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우리는 학습자들이 과연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5.18교육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목표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5.18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활용 할 수 있는 자료원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는 자료원을 중심으로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록물은 오픈아카이브와 국가 기록원 등에서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를 온라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교과서의 경우, 현재 국사와 근현대사가 한 권으로 통합되면서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이 줄어들어 심도 있는 학습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밖에도 5.18 기념재단에서 정기간행물 및 멀티미디어, 도서, 사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실제 수업에서 동기유발을 위한 자료나 참고자료로써 활용될 수는 있지만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을 스스로 재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 변화된 사회에서 교육적 요구는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지식 위주의 수업이 아닌 학습의 실제적,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 촉진을 강조하고 있고, 학습자의 실제적 응용능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며 그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과제 수행의 방법을 익히며

학습과정에서 얻게 된 지식을 사회문제에 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구성주의 철학에서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현재 5.18교육 역시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수동적인 학습형태를 지양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5.18 교육을 위해 어떠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첫째, 문제제기 교수-학습을 들 수 있다. 문제제기 교수-학습은 수업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교과와 지식의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교수자나 동료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확인하고 발전시킨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은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게 된다. 교사가 교과서나 혹은 읽기자료, 참고자료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해주면 그들은 예비지식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주철민, 2014). 예를 들어, 학습자가 “‘12·12 군사정변’과 ‘5·17’ 계엄 확대는 5.18 민주화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라고 문제를 제기 하였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증명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수행해야 하며, 이때 교사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역할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과제해결을 과정에서 동료들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전통주의적 교수 방법인 강의식은 첫째, 학문적 연구 성과의 결과물인 공유된 지식이나 교사와 사회가 인정하는 지식만을 학습하게 된다. 둘째, 기존의 전통주의적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토론과 논쟁을 하지 않고,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역사에 대한 공통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건의 변화를 진보로 해석한다. 네 번째 이미 해석된 내용을 열거하고, 이야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어진 정보의 기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 결과 문제제기 교수-학습은 역사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하나는 사건의 병렬이다. 문제제기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내용이나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일관성 없이 병렬하고, 암기를 강조하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단순히 사료의 모음만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사료만으로 모든 사실을 합리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습자에게 사료는 자신이 의문시하는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기초자료의 역할이어야 한다.

즉, 학습자의 올바른 지식 서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문제제기 교수-학습의 학습자 학습활동과 사료를 연구하는 역사학 연구 방법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역사 학자가 역사를 연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개념과 지식만을 학습하지 않는다. 문제제기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마치 역사가와 마찬가지로 학습자 스스로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5.18 교육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Flipped learning(거꾸로 학습)을 들 수 있다. Flipped learning이란, 활발한 상호작용, 학습자 중심의 활동 등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 교수학습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대안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강의실 밖에서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강의를 듣고, 강의실에서는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Bergmann & Sams, 2012). Flipped learning의 개념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공통점은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뒤집은 것으로 강의 자료를 강의실 밖으로 이동하여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이전의 과제로 여겨지던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 학습 방법과 비교하여 볼 때, 학습 절차와 운영 방법, 그리고 교수자의 역할에 있어 차이를 나타낸다.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Flipped learning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	플립러닝
학습 진행 절차		강의실 안 → 강의실 밖	강의실 밖 → 강의실 안
운영 방법	강의실 안	과제	온라인 동영상 강의
	강의실 밖	교수자 강의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학습활동
교수자 역할		강의자	조연자/촉진자

Flipped learning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Flipped learning은 강의실 밖에서 학습과 관련된 테크놀로지와 매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선수지식을 제공한다(Bergmann & Sams, 2012). 강의실 밖에서 사용되는 매체는 인쇄 자료, 강의 노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을 위한 교수 동영상, 기존의 웹 사이트에 존재하는 다양한 강의 동영상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선수지식을 습득한다. Flipped learning을 위한 동영상 자료로 앞서 제시한 5.18 기념재단의 멀티미디어 자료 5.18민주화 운동 기록관의 영상 자료 및 Youtube에 공개된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는 둘째, 강의실 안에서는 그룹 기반의 학습자 활동이 이루어진다(Frydenberg,2013). 이는 학습자와 함께 의미를 구성하는 협력학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 때, 교수자의 역할은 지식을 전수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조연자이자 촉진자가 된다. 셋째, 수업의 주체로 학습자가 강조된다(이민경, 2014).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달리 Flipped learning에서의 학습자는 보다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 간다. 교실 밖에서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를 학습하고 교실 안에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학습자의 능동성이 강조된다. 넷째,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강조된다(Bergmann & Sams, 2012). 강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활동의 경우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중심이 된다.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사고, 학습에 대한 주의집중,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내용과 활동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교수자에게 질문 등을 함으로써 조연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Fulton, 2012). 이는 앞서 제시한 문제 제기 교수-학습 방법과 같이 수업에서 제시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좀 더 심화된 학습과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18 교육의 확산을 위해 K-MOOC를 활용한 공개강의를 제안한다. 온라인 공개수업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참여적, 거대 규모의 교육을 의미한다. 기존의 수업들과는 달리 MOOC는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공개강의의 한 유형이다. 무크(MOOC)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던 기존의 온라인 학습동영상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강인원의 제한없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형 무크(K-MOOC)는 서울대, KAIST 등 10개 국내 우수대학의 총 27개 강좌를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500개 이상의 강좌 운영을 목표로 매년 강좌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5.18 교육의 확산을 위해 대학의 교양강좌로 개설된 5.18 관련 수업을 오픈강좌로 개설하여 우리나라의 학습자 뿐

만 아니라 세계인들까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줄 있다. 5.18 교육과 유사한 주제로 K-MOOC에 탑재된 교과목은 “세계시민교육, 지구공동사회의 시민으로 살기”로 경희대학교에서 개발한 교과목이다. 이는 세계시민으로써 알아야할 가치와 태도, 의식을 학습하는 것으로 6명의 교수가 팀티칭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맛보기 강좌를 필자가 살펴본 결과 “세계시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계적 이슈에 대해 우리 또는 세계의 여러 나라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최근에 관심 있는 세계적 이슈는 무엇인가요?” 등에 대한 본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궁금해 할 만한 질문을 학생(한국인, 외국 유학생 포함)들에게 직접 묻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과거의 e-Learning 수업에서처럼 교안을 화면에 띄워놓고 교수자가 강의하는 강의식 수업이 아닌 진보된 형태(다큐형식의 다양한 동영상 활용, 좌담회, 질문하기, 토론하기)의 소통과 공유가 있는 온라인 강좌였다. 이처럼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질 높은 온라인 공개강의 개발에 대해 깊이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상 3가지의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5.18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는 현대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습자의 역량함양과 더불어 5.18교육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과거 전통주의 방식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스스로 역사적 사건을 인식하고 자율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문제제기학습,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개강좌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역사적 사건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주연, 노형관, 남연화, 김용(2015).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활용한 PBL모형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29-54.

이민경 (2014).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의 교실사회학적 의미 분석: 참여 교사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4(2), 181-207.

주철민(2014). 문제제기 역사 교수-학습의 원리. *역사교육연구*, 19, 203-234.

Bergmann, J., & Sams, A. (2012). *Flip your classroom: Reach every student in every class every day*. Washington, DC: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Frydenberg, M. (2013). Flipping excel. *Information Systems Education Journal*, 11(1), 63-73.

Fulton, K. P. (2012). 10 reasons to flip. *Phi Delta Kappan*, 94(2), 20-24.

<5.18 교육.연구 학술 집담회> 발표문

## 5·18 교육과 교재의 토대에 관한 사유

박구용(전남대학교 철학과)

하나의 동일한 인간을 만들겠다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그 어떤 저항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교육헌장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영혼이 이 나라 국민의 정신을 송두리째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국정화에는 반대하면서 왜 하나의 인간을 만들겠다는 법안에는 무관심할까? 밀려오는 무기력 앞에서 냉소로 도피할 수 없으니 어딘가에 바른 길을 내야한다.

5·18 교재를 새로 만들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아가려는 오늘의 집담회에서 역사학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 사유를 나누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 추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다. 하나의 역사가 없듯 하나의 5·18도 없다. 이 맥락에서 5·18 교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에 따라 5·18 교육의 다양한 이념과 방법이 다층적으로 구성되길 바란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역사비평>에 쓴 글의 일부를 말하면서 몇 가지 간단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5·18관련 역사학과 역사교육은 독단적 주관성에서 상호주관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한다. 폭력이 아니라 자유를 키우는 역사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학이 역사가와 사료의 소통, 역사가와 역사가 사이

의 소통에서 형성된다면 역사교육은 역사가와 시민의 소통, 시민과 시민의 소통 과정이다. 역사학과 역사교육은 진리와 정의를 향한 열망을 동력으로 삼아 진행하는 소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차이는 소통의 광장에 들어가는 주체의 성격과 관심에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하버마스(J. Habermas)는 인식과 관심의 내적 연관 관계를 밝히면서 인식 관심을 세 가지, ① 기술적 인식관심, ② 실천적 인식관심, ③ 해방적 인식관심으로 나눈다. 여기서 상세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학문으로서 역사를 위해 소통하는 주체는 무엇보다 ①기술적 인식관심에서 출발한다. 특히 역사학에 유사 과학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학자들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에 다가서려는 열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현대 과학이론도 의심할 수 없는 직접적 사실의 배후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퍼스(Ch. S. Peirce)의 논증을 반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사료에 대한 경험, 분석적 인식을 지향하는 역사학자의 기술적 인식관심은 다른 역사학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충족될 수밖에 없다. 상호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의사소통의 과정에 참여하는 역사학의 주체들이 ①기술적 인식관심을 넘어서 ②실천적 인식관심으로 지평을 확장하는 이유다. 상호주관성의 패러다임에서 역사학은 실천적 행위연관을 갖는 해석학적 인식을 지향한다.

②실천적 인식관심에 의해 수행되는 역사적 의사소통은 역사학으로 한정되지 않고 역사교육으로 확장된다. 역사학이 제공하는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의 귓속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 직접 의사소통될 수 있어야만 진리의 자격을 갖는다. 물론 밀실의 귓속말이 아니라 광장의 의사소통에서 역사적 진리가 형성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의사소통이 전문가들의 의사소통보다 존재론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날조해서는 안 된다. 광장의 의사소통은 소통 가능한 것만을 소통하는 밀실보다 더 밀실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역사교육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 곧 ③해방적 인식관심의 기초 위에서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학문으로서 역사의 인식관심이 '①→②→③'으로 확장된다면 교육으로서의 역사의 인식관심은 '③→②→①'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문으로서의 역사와 교육으로서의 역사는 실천적 인식관심이라는 교차로에서 만나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관계는 끝없이 역전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연구를 통해 진리와 정의로 확정된 학문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다. 그러니 교육은 안정된 연구 성과라는 학문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 때문에 비록 내용과 방법, 그리고 주체와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교육은 일반적으로 학문에서 실천적 행위연관이 큰 것부터 선별하여

소통하고 공유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은 연구의 축적물인 학문의 뒤를 쫓아가는 그림자와 같다. 하지만 관계는 언제나 역전될 수 있다. 모든 학문은 연구 과정에서 검증되지만 교육 과정에서 비판될 수 있다. 그러니 학문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더구나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역사를 보면 학문보다 교육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 교육은 역사와 문화의 출발점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 없는 문화나 문화 없는 역사는 둥근 사각형처럼 개념화는 가능하나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역사가 기억의 축적이자 공유라면 문화는 축적되고 공유된 기억이다. 따라서 역사 교육은 축적된 기억을 끝없이 재생하면서 공유하는 과정이라면 문화 교육은 공유된 기억을 새로운 틀로 다시 축적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교육으로서의 역사는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교차로에서 쉬지 않고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으로서의 역사가 문화와 함께 시작된 것과 달리 학문으로서의 역사는 비코(G. Vico)와 볼테르(F.-M. A. Voltare), 헤겔을 거쳐 랑케(L. v. Ranke)를 통해 철학에서 독립된 학문으로서 지위를 얻어 대학에 진입한다. 어떤 것이 학문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 ①다른 학문 영역과 구별되는 대상 영역이 있어야 하고, ②그 대상 영역에 관한 보편타당한 명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역사는 ①의 조건만 갖추어져 있었을 뿐 ②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역사가 학문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는 역사에서 보편적 명제를 찾으려는 역사철학의 도움이 있었지만 정작 역사학은 철학을 제거한 사실과 사건의 학문으로 출발한다. ‘사건사’로 시작한 역사학은 ‘전체사’, ‘지속사’, ‘민중사’로의 변이를 거치는 과정에서 점차 계량 사회과학의 뒤를 쫓는 후위 학문으로서 심미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의 복수성은 이제 당위가 아니라 사실이 되었다. 그러니 역사교육도 서로 다른 복수의 역사가 만나서 때로 싸우고 때로 화해하며 서로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교육은 깊은 원한감정으로 복수심을 자극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듯하다. 복수(複數)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복수(復讐)를 꿈꾸는 것이다.

복수(復讐)를 꿈꾸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의 역사를 신화화한다. 하나의 역사에 대한 열망을 가진 역사교육은 타자를 지배와 숭배의 이분법으로 사물화 시킨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하나의 역사는 사실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힘의 크기에 따라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역사에서 타자는 나 혹은 우리보다 강하면 숭배하고 약하면 지배해

야할 집단일 뿐이다. 이 경우 중국의 억압과 수탈은 불가피한 것이고 일본의 침략과 폭력은 언젠가 응징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하나의 역사에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사물화의 논리는 지속된다. 이를 극복하려면 하나의 역사를 포기해야 한다. 그 때에만 역사교육이 타자에 대한 현혹을 부추기거나 복수심을 조장하는 어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역사가 집단적 기억이라면 역사교육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기억상실을 극복하는 것이다. 기억상실은 자기상실이며 생명상실이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의 자존심, 자신감, 자부심을 지키기 위하여 역사교육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역사 기억은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교육은 함께할 수 있는 집단의 울타리를 상징할 수밖에 없다. 역사교육은 집단의 상징적 기호인 ‘우리 의식’을 요구한다. 그 때문에 역사교육을 정체성의 형성과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라는 집단의 정체성은 언제나 ‘우리 안팎의 타자’를 무시하는 장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5·18관련 역사학과 역사교육이 ‘우리 의식’을 강화하는 정체성 교육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대부분의 집단적 정체성은 ‘우리’ 안팎의 이질적 타자를 환대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포섭되기를 강요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비가시적이고, 그 때문에 실체가 없는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가장 쉽게 동원될 5·18교육은 어떤 형태의 동일성을 지향하는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5·18을 아무리 아름다운 보편적 이념으로 포장해도 이런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5·18교육은 다수의 역사가 만나서 소통하는 과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역사교육의 다차원적 재구성은 사실과 이념이 교차하는 현재의 지평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교육에서 현재는 실용성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이 시점, 이 나라의 중등교육 과정에서 쓰이고 있는 역사교과서들은 하나같이 ‘역사를 알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들 한다. 역사는 과거이지만 현재를 구성하는 과거이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도 한국의 현재를 이해할 수 없다. 국가행정과 자본시장의 논리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는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교육의 어두운 그림자를 어떤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내적으로 식민화된 삶의 현장에서 일거수일투족이 조정되는 개인들의 일상에 대한 원인을 역사 교과서에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때려 눕혀진 사람들,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배재와 감금 속에서 굴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더구나 그런 현실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언어조차 상실한 사람들의 현실을 알려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는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역사교육은 거꾸로 국가주의, 민족주의, 영웅주의, 실용주의에 의해 필요한 역사적 인물들을 우리가 호명하는 방식이다. 현재를 제대로 보는 역사교육이라면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주체성을 형성해 왔지만 이름도 남기지 못한 인물들과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역사교과서를 보면 역사 속에서 현재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정당화시키는 역사만을 보려는 듯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5·18교육이 가야할 길이 보인다.

5·18교육은 바로 타자들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지 타자와 대결하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후대에 적과 동지의 대결 역사만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다시 반복해서 피를 흘려야 한다. 5·18교육 역사교육을 통해 적과 동지의 구별법을 끝없이 전승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5·18 역사교육은 폭력적 대결의 역사가 아니라 그 대결 때문에 고통 받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피카소의 ‘한국전쟁’을 제대로 소화하는 역사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관점으로 도피하는 5·18교육을 가능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교육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5·18교육만이 온전하게 타자와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5·18교육은 타자성을 가진 이질적 타자의 관점과 세계시민적 관점이 교차하는 곳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슬픔이 아니라 자유를 키우는 5·18교육이 되려면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을 토대로 한쪽에 감정이입을 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폭력의 뿌리를 찾아서 제거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치사 중심의 이데올로기 교육이 아니라 문화사 중심의 비판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하나의 역사를 반대하는 힘이 언젠가 하나의 인간을 반대하는 힘이 될 수 있으려면 5·18교육부터 원천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수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업권이란 교사가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러니 교과서 발행이 국정이나 검정에 묶여 있을 경우 수업권은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있는 셈이다.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할 때 가장 중대한 권리에 해당하는 수업권을 회복하려면 교과서 발행제도를 인정이나 자유 발행제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교과서의 인정발행이나 자유발행이 도입된다고 곧바로 교사가 올바른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고통을 수반한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기 삶의 주인이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빵과 힘의 노예로 살아간다. 그래선지 아직까지 한국의 교사들은 주체로서의 첫걸음인 수업권을 달라고 외치지 않는다. 스스로 교재를 만드는 것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자신들의 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국. 검정을 폐기하고 인정과 자율 제도를 도입한다고 곧바로 교사의 주체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국가 대신 시장이 주체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고 국정으로의 회기나 검정을 고수하는 것은 이 나라를 영원히 노예의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노예의 나라가 결코 자유 시민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유의 나라를 만들려면 먼저 역사교사가 역사수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정과 자율제도를 순차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본시장에 의해 조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본을 이기려면 교사에게 공부할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배우는 교사만이 참 교사다.

이런 맥락에서 5·18교육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모두를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5·18교재는 정리된 사실을 전달하는, 다시 말해 정답이 있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참고서(?)가 되어야 한다. 교재가 주인이 되면 학생은 물론이고 교수나 교사조차 노예가 된다. 5·18교재와 교육이 은유적 의미로라도 주인이나 노예를 양산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청산하는 실천이길 바란다.

## <5.18 교육. 연구 학술 집담회> 토론문

### 5.18 교육에 대한 토론

고영진 (광주대학교 교수)

5.18이 일어난 지 35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5.18은 왜곡하고 이용해먹고 더럽히는 자들로 계속 상처받고 있다. 이번 학술 집담회의 주제는 5.18 교육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발표문과 토론문은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교육의 범위를 조금 넓혀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직접적인 교육현장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과 넓은 의미의 사회 교육의 차원도 함께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5.18에 대한 교육 정책

우선 이번 발표에서는 교육 당국의 5.18 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교육부 차원 또는 지방 교육청 차원에서 5.18 교육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겨진다. 전체적인 5.18 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 2. 5.18 교육의 범위

5.18 교육에는 5.18 사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5.18이 갖고 있거나 표방하는 또는 상징하는 의미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지금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 인권, 평화, 화해와 관련된, 심지어 문명과 야만 같은 주제도 넓은 의미의 5.18 교육에 포함되어야 5.18이 더욱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아울러 한국사회 또는 호남지역, 광주사회에서의 민주, 인권, 평화의 구현 과정과 수준까지도 5.18 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사회 교육으로서의 5.18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3. 왜 5.18은 전국화에 실패했는가

앞의 주제와 연결되는 것인데 5.18의 전국화가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도 5.18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5.18이 왜 전국화에 실패했는가 는 여러 발표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토론자는 실패의

이유는 한 부분이 이 지역에게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진보세력, 민주세력, 야당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진보민주세력과 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보의 가장 큰 무기인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5.18의 전국화의 실패의 중요한 한 요인은 김대중정권을 비롯한 진보정권의 실패이다. 현재 광주와 전남이 5.18의 이념인 민주, 인권, 평화의 실천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사람들은 말과 구호가 아니라 실천에서 감동과 공감을 얻는다. 따라서 5.18 교육은 밖으로뿐만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교육이 되어야 진정한 교육이 될 것이다.

#### 4. 광주에서 5.18을 느낄 수 없다

김정인 선생님의 발표에 있는 학생의 소감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외부 사람이 광주에 왔을 때 전혀 5.18을 느낄 수가 없다. 지금 남아 있는 관련물들은 박제화된 것뿐이다. 5.18이 일어난 지 35년이 지났지만 5.18박물관 하나 없다. 유력 후보지였던 옛 전남도청은 아시아문화의 전당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광주 스스로가 5.18로부터 탈피하고 싶어서,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도망가고 싶어서, 자신이 없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당사자들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은 5.18을 어떻게 외부 사람이 경험하고 마주할 수 있겠는가?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보다 광주에 여행 와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교육이 아닐까.

#### 5. 5.18에 관한 상설 공연, 전시 시설이 필요하다

얼마 전 개관된 아시아문화의 전당에서 5.18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전시되고 공연 되는지 모르겠으나 외부에서 광주에 와서 5.18을 느끼려면 끊임없이 5.18에 대한 상설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필요하다. 마치 서울에 온 관광객들이 1년 내내 공연되는 난타 공연장을 찾아가듯이 광주에 가면 꼭 가야할 정도의 장소가 필요하다.

#### 6. 5.18을 예술로 승화시켜야 한다

호남인들은 예부터 자신들의 삶을 예술과 종교로 승화시키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 왔다. 수많은 문장가와 시인을 배출한 시가문학, 동편제와 서편제로 대표되는 판소리, 이 지역

의 독특한 전통화풍인 남종화, 민족종교인 천도교와 증산교, 원불교, 세계적인 미술축제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 등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5.18을, 나아가 민주, 인권, 평화에 관한 주제들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 1832년 프랑스 6월 봉기를 주제로 한 영화,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들이 5.18에서도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5.18을 비극적으로뿐만 아니라 심지어 희극화한 작품까지도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상으로 두서 없이 몇 글자 적어 보았다. 어쨌든 실천이 따라가지 않는 교육은 감동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실천은 남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이곳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단기전은 실패했고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어렵고 힘든 방법이지만.